



생명복제

김이슬 | 일산오마중학교
3학년
(대한전기협회 김한수
기술기준실장 자녀)

요즘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황우석 박사팀의 난자기증에 대한 논란에 대해 보도한 후 황 교수가 공직에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전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켜 그의 사퇴를 반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그의 줄기세포복제 등과 같은 위대한 연구 성과들은 유전병이나 중증환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씨는 그와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황교수의 연구 실행 여부만으로도 큰 희망이 된다며 다시 연구가 진행되기 바라는 뜻을 전했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은 생명복제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명복제란 무엇일까?

생명복제는 생명공학이라는 과학 분야의 한줄기인데, 생명공학은 DNA 재조합 기술을 응용시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기초적 학문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삼은 응용분야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생명복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1997년 영국의 복제양 “돌리”의 성공이후 과학자들에게 복제동물이 유전병과 난치병 연구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의약품 생산과 나아가 장기이식에 쓰일 수 있다는 희망이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해나갔기 때문이다. 그 뒤로 생쥐, 송아지, 원숭이, 젓소, 한우, 돼지에 이르기 까지 많은 동물들이 복제되어 세상에 나왔고, 2005년 8월 한국에서 가장 복제될 가능성이 낮은 동물중 하나로 여겨졌었던 개의 복제까지 성공시켜 생명복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명복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그에 상응한 권리를 지닌 생명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생명복제를 제지하는 의견 또한 많아 생명복제는 그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논쟁적이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에서 매우 짧은 발자취를 남겼다.

생명복제에 반대하는 여러 종교단체나 윤리단체에서는 생명복제반대의 이유로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를 다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의 명실공의 지배자로 군림한지 오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 발전이나 기술적 진보가 인간중심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미 생명복제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금 생명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생명복제가 언젠가는 인간복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배아복제의 경우 인간의 배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의 유무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아 또한 생명체이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대한 도구화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는 인간 장기이식의 경우, 인간의 장기만을 택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인간의 몸에 대한 도구화라고 볼 수 있으나 장기이식은 불치병치료나 새로운 장기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복제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맞춤아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맞춤아기”란 인간 유전자 중 우수한 형질만을 골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의 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인종적 차별이나 남녀 차별과 같은 뿌리 깊은 차별들 보다 더욱 큰 유전적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가능성이고 지금의 생명복제의 속도나 기술로 볼 때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인간복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다. 혹, 인간복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강력한 법이 거름망 역할을 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이슈였던 안락사의 경우 그것을 최초로 허가한 나라인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 허용을 위한 세 가지 조건, 대상자가 불치환자이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며 환자가 이상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력한 법안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생명복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인간의 진보를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생명복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것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개인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게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이익으로는 난치병이나 유전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 설 수 있는 길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불임 부부들에게 임신의 기쁨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이득은 사회적 이득과 연관되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불치병 환자들의 수를 볼 때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생명복제를 통해 이들을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둘째는 미래인류의 생존수단으로서 생명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상엔 계속해서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지금도 지구의 많은 곳에서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생명복제를 함으로써 식량가축의 우량품종 생산을 통해 우량 동물의 번식과 보존을 이끌어 내어 더욱더 많은 인류가 더욱더 많은 식량을 제공받게 되어 자원의 희소성이 더욱 두드러질 미래의 든든한 생존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는 의료적인 목적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이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대분야는 장기이식이다. 장기이식은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장기의 수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식을 오랫동안 기다려야하고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즉,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생명복제를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간의 장기 대신 동물들의 장기를 인간의 형질에 맞게 복제하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복제를 통해 인류의 탄생기원을 찾을 수 있어 인간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닥칠 위험이 있는 질병모델을 만들어 미래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등 여러 가지로 생명복제는 유용하다.

생명복제분야는 생물체에 대한 인간의 권리의 사용범위와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찬반양론이 부딪혀 온 고난의 역사이다. 그러나 인류가 걸어 나가야 할 길과 과학의 진보, 미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복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고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류로서 그와 상등한 권리를 지닌 생명체를 다루는 일인 만큼 그 목적이 분명하고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생명복제를 하는 과학자들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라 생각된다.

생명복제는 개인적, 사회적, 인류보편적, 의학적,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크나큰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생명복제의 혜택으로 활짝 웃을 인류의 모습을 위해 생명복제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